

양분된 조합간 통합 필요

“

양분화된
협동조합
통합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야
할 것

”

플라스틱업계의 구심적 역할을 자처하면서 구성원의 사회적, 경제적인 이익도모와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 사업자 단체인 협동조합이 지방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 체제로 나가야 하느냐 아니면,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전국조합체제로 창구를 일원화되어야 하느냐로 양분화되어 상호비방과 비난을 일삼아 온지 4여년의 세월을 보내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결과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간에 플라스틱업계에 30여년간 몸담아온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새로운 기업법 개정공포에 따라 이제는 동일업종과 동일업무 구역내에 협동조합이 중복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동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경과조치로 구제를 받게 되었다. 앞으로는 회원조합원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려 통합의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며 어디까지나 회원조합원사의 의도한 바에 따라 구도나 체제를 합당하게 개편해 나갈 일이다.

양분화 된 협동조합이 통합에 앞서 우선 하여야 될 일은 실현 가능한 업무분야부터 하나하나 상호협조와 공동의 노력으로 접근시켜 나가면서 통합분위기가 성숙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통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단계로 우선 조합원의 편익도모를 기할 수 있는 방법부터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환경보전을 위한 업계의 대응전략, 홍보조사업무를 통한 산업 및 기술정보제공, 정보화(IT)시스템구축 및 B2B 네트워크 구축사업, 플라스틱전시회의 공동주최, 단체규격제정과 단체표준인증업무 및 시험설비사용계약의 창구일원화, 해외협력을

권 중 식 /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1977년 청경산업사 설립 대표
1992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 및 감사
1993년 대구경북중부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역임
1998년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2001년 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위한 간담회 공동주최, 인력교류협력 등 상호협조가 용이한 분야부터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중소기업 보호육성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부의 유일한 지원책의 하나인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운용은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자의 사업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협동조합 존립에 없어서는 안될 유일한 수입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손쉬운 단체수의계약제도에 전부를 의존하고 있는 협동조합 현실로는 언제까지나 성장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으로 지금부터라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창의연구와 자구방안을 강구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구성원인 조합원의 역할과 사명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연합회와 지방조합설립이 일천한 가운데에도 오늘의 모습으로 성장발전하기까지 필설로 형언키 어려운 난관과 고초가 뒤따랐다.

가장 힘들었던 일은 양분화된 유사협동조합과의 통합과 협동조합의 자립 경영에 필요 불가결한 사업권이라 할 수 있는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 받는 문제이었다. 이는 상대측의 와해공작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던 결과로 오늘의 연합회는 전국 각 시, 도에 11개 지방협동조합이 설립되어 회원으로 가입 운영 중에 있으며 회원조합원사도 500여 업체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폴리에틸렌필름, FRP제품을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 받아 연간 800억원의 공동사업규모를 실현하면서 수혜조합원수만도 204여 개 업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관리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차원에서 최대한 효과를 지양하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다. 또한 연합회는 전국 각 시, 도별로 미설립된 지역의 지방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여 회원조합의 조직강화와 기능활성화에 역점을 둠으로서 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합당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지방협동조합은 적정조합원수의 유지로 기반구축과 자체자금조성을 통한 공동사업확대를 기해 나갈 것이다. 또한 KOLAS 인증을 통한 시험실 설비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확보로 생산제품의 시험분석편의를 제공하므로서 조합원 생산제품이 품질관리를 기일층 강화하여 품질향상을 기해 나갈 것이다. 이외에도 조합원의 의견수렴장으로 지방순회간담회, 설문지 활용, E-mail,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시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정보화(IT)는 잘 아시다시피 기업활동전반에 정보기술을 접목시켜 효율성과

상호 협조가
용이한
분야부터
공동으로
해결

KOLAS인증을
통한 조합원
생산제품
품질관리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으로
합성수지 제품
기술정보화
실현**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기업의 생산성향상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될 것이며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정보화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보화는 정부지원 아래 실시되는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으로서 합성수지 제품 기술정보화는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당면과제이다.

합성수지제품의 산업기술 IT D/B 구축과 서비스시스템 구축 그리고 합성수지제조, 사용업체간 B2B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정부지원 아래 추진해야할 우리업체의 시급한 과제임과 동시에 관심분야가 될 것이라고 여긴다. 이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뜻과 의욕으로 될 일이 아니라 정부, 업체나 연구기관 등이 협동조합 체제를 통해 추진해 나가야할 과제로서 관련단체나 협동조합과의 공동개발을 제의하고자 한다.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의 변화 속에서 플라스틱산업에 대한 정보교환과 해외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알차고 다양한 산업 및 기술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플라스틱 및 포장관련 홍보지를 홍보매체로 활용하고 회원조합원사에 무상보급을 통한 구독을 권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건이 갖춰지면 홍보물의 자체적인 제작보급도 고려 중에 있다.

21세기 세계화 추세에 따라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의 플라스틱 업계와의 상호정보교환을 통한 수출시장개척과 조합원사의 현지진출 등을 모색하고 한·중 플라스틱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양국이 상호교환 방문으로 개최되는 간담회개최와 공장방문 등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협약체결을 앞두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성수지제품의 국내외수급 및 시장동향 가격 등에 대한 조사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연합회 내에 5개 기능별 분과위원회(기술연구, 홍보조사, 해외협력, 공동사업, 환경보전)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협동조합과 업계발전에 반영시켜 나갈 것이다.

필요할 때 필요한 인재를 활용하는 시대이다. 연합회는 앞으로의 방향을 확실히 재정립할 시기가 지금이라고 믿고 있으며 연합회와 지방조합 설립 후 3년이 지난 오늘이 재도약의 시기에 접해 있다고 본다. 정신적인 재무장을 통한 임직원의 자세확립과 책임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서둘러 각자의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이로서 능력위주에 합당한

**중국 플라스틱
업계와
상호 정보교환
모색**

연봉제 실시와 적재적소의 인력활용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업계가 간과할 수 없는 과제로 플라스틱이 환경의 주범으로 오인되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합성수지제품에 대한 폐플라스틱의 수집처리 및 폐기된 플라스틱자원의 재활용은 자연 환경보전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태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합성수지제품이 관련산업과의 비중이 결코 적지 않은 업종이며 기술개발 기반확충이 필요한 분야로서 기술연구개발에 부여된 책임의식을 재인식하여 산학연을 통한 공동연구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능력이 취약한 업계의 기술개발의욕을 부추겨 지원해 나갈 것이며 연합회가 주관하여 기술개발 확산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특히나 금년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한·일 월드컵대회가 이 땅에서 역사적인 행사로 개막되고 또한 아시안 올림픽이 열리며 지방자치선거와 국운을 좌우할 대전을 치르게 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IMF사태가 조기에 진정되고 경제성장률을 5%대로 상향조정하는 등 모처럼 경제회복이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저하와 7월부터 시행예정인 중소기업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제조업체의 위험부담의 과중에 적절한 대비와 대응이 필요한 어려운 면도 예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인력부족에 대한 인력확보난, 값싼 수입품으로 추격해 오고 있는 후발개도국의 공세, 산업의 공동화 등 플라스틱업계의 심각한 미래를 생각할 때 격화되고 있는 국제경쟁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품종소량생산, 단납기, 저코스트를 추구해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생산원가와 품질관리로 기업의 체질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리라 본다.

쓴 약은 최고책임자에게 도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협동조합설립이 일천했던 지나간 기반 조성기에는 다소 무리수를 뒤 밀어 부치기씩 경영이 부득이 하였다면 앞으로는 쓴 약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로 구성원의 전체의사를 존중하고 수렴하여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다져 나갈 생각이다. 무엇보다 각 지방조합과 연합회가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화합을 이뤄나갈 것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

환경오염문제

**를 보다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응해
나가야**

각 지방조합과

연합회가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화합 이룰것